

금속노조 농성대오 국회 포위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포위 농성투쟁 ... 경찰 방해 물리치고 농성 텐트 설치, 노숙투쟁

[12월 5일~6일]

금속노조가 12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포위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비정규직 조합원, 중앙집행위원, 임원, 사무처 등 150여 명은 영하의 거리에서 비닐을 덮고 밤을 지새웠다. 새벽 비닐 위에 눈이 쌓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2022년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압박하고, 노조법 개정 전선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 농성투쟁을 결정했다.

노조 중집위원들은 완강한 투쟁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중집회의에 상정한 원안 투쟁계획보다 수위를 높여 지부장들이 농성 기간 국회 앞을 지키는 등의 안으로 수정, 결의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12월 5일 저녁 개최한 투쟁문화제에서 “노동조합 활동 25년 만에 첫 단식투쟁이다. 너무나 절박해 단식을 결심했



다”라고 절절한 심정을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하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장과 교섭하는 길이 열린다. 전경련은 모든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을 반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윤석열은 국회에서 토론도 하기 전에 거부권 운운한다”라며 “자본과 정권이 결사 항전하고 있다. 우리는 더욱 절박하게 노조법 개정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순 없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끝장내기 위한 기로이다”라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파업해 투쟁의 길을 열었듯이 국회 포위 농성을 기점으로 노조법 개정 투쟁의 길로 함께 달려가자”라고 당부했다.

5일 상경한 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지부장 등 농성대오는 퇴근 선전전, 투쟁문화제를 마치고

철야농성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은 자칫 체온 유지 기능이 떨어져 위험한 영하의 날씨인데 1인용 간이 텐트 등 반입을 막았다.

조합원들은 비닐 위에 간 깔개 위에 몸을 눕혔다. 차가운 날씨와 질주하는 차량 소음 등으로 잠들기 어려운 밤이 지났다.

12월 6일 농성 둘째 날 아침 조합원들은 쌓인 눈을 밟고 국회 앞에 다시 섰다. 출근에 나선 서울 시민과

국회 직원들에게 노조법 개정 투쟁 중임을 알렸다. 조합원들은 아침 식사 뒤 조를 나눠 국회 인근의 국민 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국민의힘에 노조법 개정 방해 중단과 화물연대 파업 파괴 중단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노조법 개정 당론채택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6일 오후 국회 앞 대로에 집회 대오를 만들었다. 5일부터 6일 오후까지 농성투쟁을 벌이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농성을 벌이는 지회장들이 만나 서로 투쟁을 격려하고, 노조법 개정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12월 6일~7일]

금속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 투지로 국회를 포위했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포위 농성투쟁’을 전개 중인 금속노조는 6일 밤 국회 정문을 중심으로 왼쪽 의원회관 쪽 인도부터 오른쪽 국회박물관 쪽 인도까지 1인용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벌였다.

5일 오후부터 6일 오후까지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조 지회장들은 6일 저녁 퇴근 선전전, 투쟁문화제를 마치고 노숙농성 지침을 기다렸다. 노조의 지침을 받은 지부들은 경찰의 방해를 물리치고 1인용 텐트를 일사불란하게 펼쳤다.

노조 지회장들은 지난 임단투와 농성 1일 차 활동을 서로 격려하고 안부를 물으며 차디찬 여의도의 칼



바람을 이겨냈다.

7일 아침부터 출근 선전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향의 집회,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까지 일정을 마친 노조 지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2박 3일 농성을 정리하는 투쟁사에서 “밤새 추위에 떨면서 가슴 속에 분노의 칼을 갈았을 거로 생각한다” 라면서 “비정규직 조합원과 지회장 동지들의 농성을 오늘 정리하지만, 노조 중집위원들은 내일까지 국회 압박 농

성을 전개한다” 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지만, 노동자의 뜻으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완수하자” 라며 “화물연대 동지들이 윤석열 정권에 탄압을 당하지만, 금속노조가 역할을 다하면 탄압을 떨치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호소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단식투쟁을 여드레째 벌이는 윤장혁 위원장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임원, 지부장들은 7일 저녁 민주노총 주최 투쟁문화제에 참가한 뒤 농성 사흘째 밤을 맞이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재건하라”

일본 닛토 자본 공장 화재 핑계로 청산 시도 ... 지회, “끝까지 저항해 구미공장 다시 세울 것”

일본 자본이 또 금속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한국산연, 다이셀, 한국와이퍼에 이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일본 자본이 먹튀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모기업인 일본 닛토 자본이 지난 10월 공장에 불이 났다는 핑계로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은 12월 7일 국회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일방 청산 철회와 구미공장 재건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월 4일 17시경 생산설비 스파크 화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이 모두 탔다. 지회는 사측에 화재보험 내용을 밝히고,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사측은 결정권이 없으니 일본 본사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한 달이 지난 11월 4일 사측은 공장을 청산하겠다고 통보했다. 지회는 “사측이 본사가 청산을 결정했으니 화재보험 내용은 알려 줄 수 없고, 희망퇴직 위로금만 논의하고, 지회가 받지 않으면 정리해고한다”라며 협박한다고 밝혔다.

구미 엘지디스플레이에 LCD 편광



필름을 납품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그룹이 2003년 구미 4공단에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세웠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18년, 2019년에 엘지디스플레이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지회는 정리해고 협박에 투쟁을 제대로 못 하고 247명, 108명을 차례로 떠나보냈다. 두 번의 구조조정으로 57명의 조합원이 남은 상태다.

코로나로 중국 상하이 공장이 봉쇄되자 닛토 자본과 사측은 물량 확보와 신규채용을 약속했고, 지회는 2022년 임단협에서 빠른 교섭 합의로 화답했다.

지회는 “일본 자본이 공장을 살리기 위해 두 번의 구조조정을 감내한 노동자들을 또 속이고 해고하려 한다”라며 “더는 당하지 않겠다. 연 매출 4,000억 원의 공장을 포기하

고, 화재보험금 1,300억 원만 챙겨 먹튀하려는 닛토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지회는 구미지부와 노조 임원 등과 함께 전 조합원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지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닛토 자본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 조직력과 투쟁력을 모으고 있다.

지회는 닛토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선전전과 집회, 일본 닛토그룹 본사 원정투쟁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회는 “닛토 자본은 일방 청산을 철회하고 구미공장을 재건해야 한다”라며 “닛토 자본은 당장 교섭에 나와 상생 계획을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19만 금속노조와 함께 끝까지 저항해 구미공장 재건을 쟁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